

학동 참사 후에도...안전 위협 건설현장 '수두룩'

광주, 현장 7곳 중지 명령·18곳 시정 조치 ... 하천 36곳 정비
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공직자 무사안일 업무태도 개선 시급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광주시가 뒤늦게 진행한 ‘뒷북 점검’에서도 시민안전 위협하는 건설현장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도심 하천 초등학생 익사 사고 직후 이뤄진 광주시의 하천 안전점검에선 안전불감증 미흡 등 곳곳에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동안 이들 현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지역 내에서도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해 시민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 광주시 시민안전실 등 관련 공직자에 대한 선제 없는 문책과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는 등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두 차례나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각성운동 등 책임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등 외부로만 떠넘기는 모습을 반복해 시민의 공분만 사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범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18일 ‘안전점검 특별주간 점검결과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중간 발표’를 통해 “대규모 건설 현장 중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7개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켰고, 개선이 필요한 18개소는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주간으로 정해 5개 자치구와 산하 기관, 전문가와 함께 건설 현장 등 재난취약시설 1만 4533곳 등을 안전점검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현재 전체 사업장의 40%인 5800개소를 점검했으며, 학동 참사 현장인 학동 4구역을 비롯한 주월 장미, 운암 3단지 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3곳과 동명동, 백운동, 산정동 해체 현장, 남구 수박동 주택건설 공사

현장 등 7곳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은 아직도 미보상 건물 6개동이 미철거 되는 등 시민안전 위협하고 있었으며, 운암 3단지해체계획서마저 지키지 않고 해체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남구 수박동 주택건설 현장엔 철거공사 후 절토사면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을 받았다.

안전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번 점검은

학동 붕괴 참사 후 사실상 공사현장에 사전 고지되는 등 ‘뒷북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심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관련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시는 또 최근 도심 대표 하천인 풍영정천에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심 하천 36개소를 점검했는데, 안전불감증과 구멍난 미비치, 안전 표시판 불량 등이 발견돼 뒤늦은 정비에 나서고 있다.

도심 하천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광주일보 2018년 7월 31일자 6면)을 요구하는 언론과 지역사회의 지적이 집중돼 왔다는 점에서, 늑장 행정에 따

른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광주시 시민안전실이 내실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뿐이지 내뱉는 데도, 시민이 신뢰하지 않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만 봐도, 그동안 광주시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을 얼마나 방치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특히 학동 참사 후에도 진정성 있는 내부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외부 건설업체 등의 탓으로만 돌리는 듯한 시의 행정 행태에 지역사회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완호수공원 시원한 음악분수

20일 저녁 광주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분수대에서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원스런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수완호수공원 음악분수는 매일 밤 7시 30분과 8시 30분 두차례 가동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흑산공항 연내 착공 여부 이번 주 ‘분수령’

대체부지 공원 편입 의견 접근
해수부·전남도·신안군 협의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의 연내 착공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신안군이 제안한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부지 국립공원 편입 건에 대해 정부부처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서 이번 주 해양수산부, 전남도, 신안군의 협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신안군,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실 주재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모여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와 선도 갯벌 대체편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환경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선도 갯벌이 이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립공원 대체 편입의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안군은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도초갯벌 89㏎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전례가 있다며 정부부처 간 업무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안군은 지난 3월 정부에 흑산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 대체 편입 지역 등을 담은 ‘국립공원 구역조정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흑산면 예리 공항 건설예정지와 인근 도초, 비금, 흑산면 일대 249만299㎡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지도읍 선도 갯벌 공유수면과 도초 비금면 일대 557만 219㎡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갯벌을 육상으로 보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가 육상 편입이 어렵다면 기존 국립공원과 연결된 해수면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흑산공항 예정지 만큼의 범위와 면적을 해수면으로 조정하거나 확대해 편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추후

다른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뜻을 밝혔다. 이번 달 말 열리는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조정총괄협의회에 이 안전을 상정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부처 간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전남도, 청와대가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신안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연내 착공 가능성을 높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부부처 간 조율만 남은 상황으로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며 “관건은 환경부와 해수부가 서로의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흑산공항의 연내 착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는 흑산공항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주 신안군 등과의 협의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비수도권 모임금지 해제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은 6인 모임 허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약 반년 만에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만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자의 경우 내달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대부고 총동창회 25차 회기 정기총회

일시

2021. 6. 29.(화) 오후 6시30분

장소

데일리웨딩홀 1층

- ☎ 062-372-1000
- 광주 서구 시청로 45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코스메틱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